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일 양국어의 수동표현 비교연구

指導教授 金勝漢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鄭河瑛

2007年 8月

# 한·일 양국어의 수동표현 비교연구

指導教授 金勝漢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鄭河瑛

鄭河瑛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7年 8月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 한·일 양국어의 수동표현 비교 연구

鄭河瑛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勝漢

일본어와 한국어에는 주체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작용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의 수동표현이 존재한다. 수동표현은 동작을 받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형식으로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대응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습자들을 혼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평상시 일본인과 대화를 하다보면 일본인들의 빈번한 수동표현의 사용을 접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어는 수동이 아닌 능동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수동표현을 형태와 의미별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한국어 대응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에 비해 폭넓게 사용되는 일본어 수동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일본어 수동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이 논문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첫째로는 양국어 수동표현의 전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둘째로는 일본소설을 두 권 선정하여 소설에 나타난 수동표현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수동표현의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일본소설에 나타난 수동표현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동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형태적으로 일본어의 경우, 서술어인 동사의 미연형에 (ら)れる가 접속하는 단일형태를 갖는데 반해,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동사에 따라 「이 형(形)」 「-지다 형(形)」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이 접속하는 다양한 수동 형태를 갖는다. 또한, 구문적으로는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동작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대응하는 능동형식이 존재하는 직접수동과, 동작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대응하는

---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임.

능동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간접수동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의 수동표현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어의 직접수동에 해당하는 수동 형식으로, 한국어에는 일본어의 간접수동에 해당하는 구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의미적으로는 양국어 모두 수동표현이 피해, 중립, 수익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소설을 통하여 수동표현의 실태를 살펴보면 구문적으로는 직접수동이 간접수동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대부분이 직접수동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미적으로는 대부분이 피해·중립·수익의 의미 가운데 대부분이 피해와 중립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소설에 나타난 수동표현이 한국어 번역소설에서는 모두 수동표현으로 그대로 대응하지 않고 상당부분이 한국어에서는 능동표현으로 대응하여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의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직접수동에 비하여 간접수동일 때 대부분이 능동표현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일본어의 직접수동은 대부분이 한국어에서는 수동 형태를 갖기 어려운 어휘에 의한 것으로 어휘의 성격에 기인한다. 한편, 간접수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동사에 의하여 피해를 나타내는 「迷惑の受身」로 자동사에 의한 「迷惑の受身」는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목 차

국문초록	i
<b>I. 서론</b>	1
1.1 연구목적	1
1.2 연구방법	2
<b>II. 일본어 수동표현의 특징</b>	3
2.1 형태적 특징	4
2.2 구문적 특징	4
2.3 의미적 특징	6
<b>III. 한국어 수동표현의 특징</b>	12
3.1 형태적 특징	13
3.2 의미적 특징	14
<b>IV. 수동표현의 사용실태</b>	18
4.1 일본 소설에서의 수동표현 사용 현황	18
4.1.1 구문별 현황	19
4.1.2 의미별 현황	20
<b>V. 수동표현의 대응관계</b>	23
5.1 형태적 대응	23
5.2 의미적 대응	25
5.3 일본어 수동표현과 한국어 능동표현 대응	28
5.3.1 직접수동	28
5.3.2 간접수동	30
<b>V. 결 론</b>	33
참고문헌	36
Abstract	39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같고, 문법 면에서나 어휘 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외국어에 비해 어순이 같은 일본어가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처럼 어순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응하지 않는 표현을 접했을 때 학습자들은 당황하게 된다.

(1) 山田さんは父親に死なれた。

(2) 鈴木さんに声をかけられた。

(1, 2)에서 「父親に死なれた」 「声をかけられた」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 할 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결국 이를 그냥 수동으로 직역을 해버려 문장을 어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인과 평상시 대화를 하다보면, 「~に言われた」 「~に怒られた」 「~に見られちゃた」 등 빈번한 수동표현을 접하게 된다. 이에 반해 같은 상황에서 한국어의 경우는 「~가 말했다」 「~가 화냈다」 「~에게 들켰다」와 같이 능동표현을 쓰게 된다.

한편,

(3) 私はお母さんに日記を読まれた。

(4) この本は多くの人に読まれている。

「読まれる」의 동일한 수동표현에 대하여 (3)의 경우는, 엄마가 나의 일기를 읽어 버렸다는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4)의 경우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형태를 갖는 수동표현일지라도 (3)과 같이 피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고, (4)와 같



이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수동표현은 형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 해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 일본어 수동표현을 형태와 의미별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한국어 대응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에 비해 폭넓게 사용되는 일본어 수동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일본어 수동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 방법

이 논문에서는 양국어 수동표현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일본소설에 나타난 수동표현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수동표현의 사용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일본소설에 나타난 수동표현이 한국어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동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어의 수동표현과 한국어의 수동표현을 형태적, 의미적으로 분류하여 양국어의 수동표현이 갖는 형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 ② 일본소설 江国香織(에쿠니가오리)의 「冷静と情熱のあいだ」와 村上竜(무라카미 류)의 「キョウコ」에 나타난 수동표현을 발췌하여 구문별, 의미별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어 번역소설에서는 일본어 수동표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sup>1)</sup>

---

1) ① 소설 『冷静と情熱のあいだ』는 일본 인기 작가 江国香織의 2001년 작품으로, 주인공 시점에 따라 blue와 Rosso 의 2부로 발간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여자 주인공 시점에서 쓰여진 Rosso 편만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2001년 김난주 訳의 「냉정과 열정사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② 소설 『キョウコ』는 일본 인기 작가 村上竜의 1995년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1997년 양역관 訳의 「쿄코」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 Ⅱ. 일본어 수동표현의 특징

수동(受動)<sup>2)</sup>이란 주체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작용을 받는 것을 일컫는다.<sup>3)</sup> 이러한 수동에 대응하는 것이 능동(能動)인데, 능동은 스스로 움직여 작용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동작의 주체(동작주)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문이 능동문(能動文)이고, 동작을 받는 대상(피동작주)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문이 수동문(受動文)이다.

- (5) a. 太郎は次郎に殴られた。  
b. 次郎は太郎を殴った。  
(6) a. 太郎は次郎に殺された。  
b. 次郎は太郎を殺した。

(5, 6)은 「殴る」와 「殺す」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5a, 6a)는 동작을 받은 대상인 太郎를 주어로 하여 피동작주의 입장에서 서술하였고, (5b, 6b)는 동작을 직접 행한, 次郎를 주어로 하여 동작주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즉, (5a, 6a)는 피동작주 중심의 수동표현이고 (5b, 6b)는 동작주 중심의 능동표현이다.

이처럼 문(文)은 동일한 사항에서도 표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동사의 형식이 결정되어 수동표현이 되기도 하고, 능동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어의 수동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적, 의미적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일본어 문법에서는 受身(うけみ), 所相(しょそう), 被動, 受動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수동(受動)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3) 山口明穂·秋本守英 編 (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67 참조 원문번역.

## 2.1 형태적 특징

(7) あおいがいたら、順正に叱られるかもしれない。

(小説『冷情と情熱の愛だ』, 以下「冷静」 p181)

(8) あれは私にとって全世界から拒絶されたのとおなじことだった。

(冷静 p145)

일본어의 수동 표현의 형태는 (7, 8)처럼 동사의 미연형에 「(ら)れる」가 접속한다. 또한 「(ら)れる」의 형태는 수동 표현 이외에도 자발·가능·존경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sup>4)</sup> 하지만 가능표현의 경우 「書かれる→書ける、読まれる→読める」의 형태가 존재하고, 존경의 표현인 경우 역시 「お~になる」의 표현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일본어에 있어서 「(ら)れる」의 형태는 대부분 수동표현의 전용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동사의 미연형에 수동을 나타내는 조동사 「(ら)れる」가 접속하여,

「X(被動作主)は/が Y(動作主)に/によって/から V-(ら)れる」의 형태를 갖는다.

## 2.2 구문적 특징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형태상으로는 (ら)れる에 의한 단일형태를 갖지만, (ら)れる 형식으로 나타난 동작에 대하여 동작을 행한 동작주와 동작을 받는 피동작주의 관계나 혹은 사용된 문맥, 상황에 따라 구문적, 의미적으로 특징을 갖는다. 먼저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2.1 직접수동

수동은 대응하는 능동문과의 관계에 따라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으로 나누어진다.

4) a. 私、刺身は食べられない。 (가능)  
b. 昨日、先生がこちらに来られました。 (존경)  
c. 昔のことがよく思い出されない。 (자발)

- (9) a. 私が順正に捨てるのが、これで二番目である。 (冷静 p261)  
 b. 順正が私を捨てるのは、これで二番目である。
- (10) a. 何度も喋ってはいけないと(僕たちは)ママにきつく叱られた。 (キョウコ p189)  
 b. 何度も喋ってはいけないとママは僕たちをきつく叱った。

(9)는 「捨てる」의 동작에 대하여 동작을 행한 자는 「順正」이고 「捨てる」의 동작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私」이다. 즉, 「順正が私を捨てる」라는 상황에 대하여 (9b)는 행위의 주체인 「順正」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고, (9a)는 「捨てる」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私」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편 「順正」와 「私」 모두 「捨てる」의 동작에 대하여 관여하며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10)의 경우 역시, 「叱る」의 동작에 대하여 동작주는 「ママ」이고 피동작주는 「僕たち」이다. 이에 「ママが僕たちを叱る」라는 상황에 대하여 (10b)는 동작을 행한 「ママ」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고, (10a)는 「叱る」의 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자인 「僕たち」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한편 「ママ」와 「僕たち」는 모두 「叱る」의 동작에 대하여 관여하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처럼 동작을 행한 동작주와 동작을 받는 피동작주가 문장에 모두 나타나 행위에 대하여 서로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고, 그 동작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피동작주를 주어로 하여 피동작주 입장에서 상황을 서술하는 수동형식을 직접수동이라 한다.<sup>5)</sup> 한편 직접수동은 (9b, 10b)와 같이 동작주를 중심으로 하는 능동표현이 성립한다.

즉, 직접수동이란, 「Xが(は)Yに~される」가 「Yが(は)Xを(に)~する」로 대응하는 능동표현이 존재하고 X가 Y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는 수동형식이다.

## 2.2.2 간접수동

- (11) a. 順正はおじいさんに入院された。 (冷静 p266)  
 b. \*おじいさんは順正を入院した。

5) 寺村秀夫(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の意味I』, くろしお出版, p217

(12) a.(私は)ベランダで夕方の風に吹かれながら、私はからからと涼しい音をたててグラスの氷を揺らす。

(冷静 p115)

b.\* ベランダで風は私を吹いながら、私はからからと涼しい音をたててグラスの氷を揺らす。

(11)에서는 「入院した」의 동작에 대하여 동작의 주체는 「おじいさん」이지만 「入院した」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順正」가 아니다. 즉 「入院した」라는 동작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아 「おじいさん」과 「順正」는 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 하지만 주어를 「順正」로 두어, 이미 일어난 「おじいさんが入院した」라는 사항을 「おじいさんに入院された」라는 수동형식을 통해 주어가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어인 「順正」가 「入院した」의 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작을 행한 주체인 「おじいさん」을 중심으로 한 (11b)와 같은 능동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12)의 경우도 「吹く」라는 동작에 대하여 동작의 주체는 「風」이지만, 「吹く」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私」가 아니다. 즉 「風が吹く」라는 동작 대하여 주어 「私」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주어가 동작의 주체인 동작주와 사항에 대하여 서로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고, 단지 수동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동형식을 간접수동<sup>6)</sup>이라고 한다. 한편 간접수동은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피동작주가 동작주에 의한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므로 동작주를 중심으로 하는 「X(동작주)は/がY(피동작주)を~する」의 능동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형태적 구문적 특징을 갖는 수동표현이 의미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2.3 의미적 특징

수동표현은 피동작주가 동작주 혹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작용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이므로, 그 받는 작용이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동표현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6) 寺村秀夫(1982), p243

### 2.3.1 피해의 의미

피해의 의미는 동사가 갖는 의미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수동 형식을 취함으로써 피해의 의미로 전용되기도 한다.

먼저 동사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13) (順正に)私は殴られるかと思ったが、順正は殴らなかった。 (冷静 p261)

(14) 僕達は人に差別されることがある。 (キョウコ p125)

(15) まわりからいじめられるような情けない男になった。 (キョウコ p48)

(13~15)의 동사는 「殴る」「差別する」「いじめる」와 같이 동사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로 이들 동사가 수동 형태를 취하면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13)은 「殴る」라는 사항에 대하여 동작주는 「順正」이고, 동작의 대상이 되는 피동작주는 「私」이다. 이에 (13)은 「順正が私を殴る」의 사항을 피동작주인 「私」을 주어로 하여 「私は殴られる」의 수동형식을 취하여 「私」의 입장에서 피해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14)는 「人が僕達を差別する」라는 사항에 대하여, 「差別する」동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僕達」를 주어로 함으로써 「僕達が差別される」의 수동형식이 되어 「僕達」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15) 역시 피동작주가 동작주로부터 「いじめる」의 따돌림을 당했다는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동사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동형식을 취하게 될 경우, 피동작주의 피해적인 의미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동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동 형식을 취함으로써 피해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6) 今朝、怖い夢をみた。私が声に笑われる夢。 (冷静 p51)

(17) その日の客はドイツ人で、午前中はグルグルとダウンタウンを回されたが、午後からは夕方にかけて長い会議があるとかで俺はフリーになった。 (キョウコ p11)

(18) フェデリカにみつめられ、私は自分が思いだしていたものまで見透かされた気がしてうろたえた。

(冷静 p172)

(16)의 동사 「笑う」는 본래 「웃다」의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따라서 「私が笑う」인 능동표현에서는 「내가 웃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였던 것이 「私が笑われる」의 수동표현을 취함으로써 「조롱당하다」 「웃음거리가 되다」와 같은 피해의 의미를 갖게 된다. (16)에서는 「声に笑われる」 「목소리에 조롱당하다」로 해석이 가능하여 역시 피해의 의미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의 「回す」동사는 「돌리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 중립적인 의미였던 것이 「回される」의 수동표현을 취함으로써 (17)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손님에 의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피해의 의미로서 나타내고 있다.

(18)의 「見透かす」역시 능동표현에서는 「알아채다. 간파하다」의 중립적 의미를 갖는 동사이지만 (18)과 같이 수동표현에 의하여 「들키다」의 의미로 해석되어 나의 생각들이 들켜버렸다는 피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표현은 동사의 성격에 의하여 동사의 부정적 의미가 반영된 경우와 동사의 성격은 중립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이지만 수동 형태를 취함으로써 피해의 의미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다.

### 2.3.2 중립의 의미

(19) 十五世紀に立てられた古い教会だ。 (冷静 p78)

(20) 十五年前に州の公的な史跡に指定されるまでは、 (キョウコ p164)

(21) 私は皆にデズロー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 (冷静 p10)

(19~21)의 수동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 「立てる」 「指定する」 「呼ぶ」는 모두 동사 자체에 의미상 긍정 혹은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의미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수동표현으로 취한 (19)는 「教会を立てる」라는 사항이 「教会が立てられた」라는 수동표현이 되면서 동작주인 누군가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서



술한 표현이다. 이 문장 역시 교회를 지은 동작주가 존재하여 피동작주인 「教会」가 동작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즉 동작주가 받은 영향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말할 수 없고, 단순히 교회가 세워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동표현은 의미상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 21) 역시 역사적 유물로 지정된 사실과, 모두에게 「テゾロー」라고 불리는 상황을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어의 수동표현에는 동작주와 피동작주가 모두 존재하지만, 피동작주가 동작주로부터 받은 영향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해(利害)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2.3.3 수익의 의미

수익의 의미 역시 동사가 갖는 성격에 따라 수동표현의 의미적 특징이 결정되기도 하고, 수동 형식을 취함으로써 본래의 동사가 갖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 전용되기도 한다.

먼저, 동사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22) あなたも誉められたの?。 (冷静 p164)

(23) 女の医者から教えられたとおり、 (キョウコ p116)

(24) 男は女に支えられてトイレに行った。 (キョウコ p141)

(22~24)의 동사 「誉める」「教える」「支える」의 동사는 「칭찬하다」「가르치다」「지탱하다, 부축하다」와 같이 본래 수익의 성격을 갖는 동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사가 수동 형태를 취할 경우 (22)는 피동작주인 「わたし」는 동작주인 「先生」로부터 「誉められた」 즉 칭찬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23, 24) 역시 피동작주가 동작주로부터 각각 「教えられる」와 「支えられる」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22~24)는,

- (22) a. あなたを誉めてくれたの？。
- (23) a. 女の医者に教えてもらったとおり、
- (24) a. 女が男を支えてくれてトイレに行った。

(22a~24a)와 같이 동작주로부터 이익(利益)이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もらう」 혹은 「てくれる」의 수혜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어 수동표현은 의미상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수혜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동작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익(受益)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동사 자체에 수익의 의미를 갖는 동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동형식을 취하게 될 경우, 피동작주의 수익의 의미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동사가 수익의 의미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25) はじめて紹介されたときにはおどろいた。(冷静 p55)
- (26) それ以上に相手に理解されたがっていた。(冷静 p89)

(25)의 「紹介する」 동사는 「~을 소개하다」의 능동표현에서는 중립의 의미에 가까운 동사이지만 (25)와 같이 「紹介される」의 수동표현을 취함으로써 「소개 받다」의 수익의 의미를 갖게 된다. (26)의 「理解する」 역시 동사자체에 대하여 중립의 의미를 갖지만 「理解される」의 수동표현에 의하여 「이해 받다」의 수익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수익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표현은 동사의 성격에 의하여 동사가 수익의 의미가 반영된 경우와 동사의 성격은 중립적이지만 수동형태를 취함으로써 수익의 의미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형태상으로는 (ら)れる의 단일형태의 단순한 형태를 갖지만, 의미상에 있어서는 문장 내에서 「피해」 「중립」 「수익」 등의 다양한 의미적 특징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sup>7)</sup> 또한 이러한 수동표현의 의미는 동사가 본래 갖고 있는 의미적 성격이 반영되기도 하고 혹은 수동 형태를 취함으로써 의미가 전용되기도 한다.

7) 寺村秀夫(1982), p251

한편, 이처럼 동사의 성격, 혹은 수동 형태의 구조적인 원인 이외에 문의 앞뒤의 문맥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27) a. お客様が来た。  
b. 夜中にお客様に来られて眠れなかった。  
c.今日は朝早いからたくさんのお客様に来られて売り上げがよかった。

(27a)의 「お客様が来た」라는 표현이 (27b)에서는 한밤중에 손님이 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피해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27c)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매출이 좋았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동사의 수동표현이지만 문의 앞뒤의 문맥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동표현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문맥의 전후 관계와 동사의 의미 등 다양한 요소가 포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Ⅲ. 한국어 수동표현의 특징

한국어에서의 수동(受動)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 또는 다른 것으로부터 작용을 받는 것을 뜻한다<sup>8)</sup>. 수동이 외부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 성립에는 외부 작용의 주체인 동작주와, 작용을 받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피동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sup>9)</sup>

- (28) a. 개가 닭을 쫓는다.  
b. 닭이 개에게 쫓긴다.  
(29) a. 주인이 도둑을 잡았다  
b. 도둑이 주인에게 잡혔다.

(28, 29)는 「쫓다」와 「잡다」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8a, 29a)는 동작주인 「개」와 「주인」을 주어로 하고 피동작주인 「닭」과 「도둑」을 목적어로 한 동작주의 중심의 능동문(能動文)이다. 이에 대하여 (28b, 29b)는 피동작주인 「닭」과 「도둑」을 주어로 함으로써 피동작주가 동작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 수동문(受動文)이다.

이처럼 한국어 역시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동작의 대상이 되는 피동작주를 주어로 하느냐 동작을 행한 동작주를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수동표현과 능동표현이 결정된다.

다음은 한국어의 수동표현이 성립하기 위한 형태적·의미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8) 이희승 외 (199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p2064  
한국어의 수동은 주로 피동(被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수동(受動)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9) 이정택(2004), 『현대국어피동연구』, 박이정. p10

### 3.1 형태적 특징

- (30) 나는 불현듯 욕망에 사로잡힌다. (냉정 p27)  
(31) 그 교회는 15세기에 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다. (냉정 p82)  
(32) 나와 엘레나는 세 번 거절당했다. (쿄코 p124)

(30~32)은 각각 동작주에 의한 「사로잡다」 「세우다」 「거절하다」의 동작에 대하여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피동작주를 주어로 하여 표현한 수동표현이다. 이들 문장에 취해진 수동문의 형태를 살펴보면, 각각 「사로잡히다」, 「세워지다」, 「거절당하다」로 형태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수동 형태를 만드는 규칙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1 「이 형(形)」<sup>10)</sup> 수동 접미사 첨가형식

- (33) a. 먹다(食べる) → 먹히다(食べられる)  
b. 쓰다(使う, 書く) → 쓰이다(使われる, 書かれる)  
c. 걸다(かける) → 걸리다(かけられる)  
d. 담다(盛る) → 담기다(盛られる)

(33a~33d)처럼 동사의 어간에 「-이/-히/-리/-기」의 「이 형(形)」수동 접미사가 접속하여 수동의 형태를 갖게 된다. 한편, (33a~33d)의 동사는 모두 타동사로 타동사에만 접속한다. 또한 「-이/-히/-리/-기」의 접미사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타동사의 어간말음(語幹末音)의 차이에 따라 네 개의 접미사 중 하나가 접속하는 것으로 의미적인 차이는 없다.

#### 3.1.2 보조동사 「-지다 형(形)」첨가형식

- (34) a. 만들다(作る) → 만들어지다(作られる)

10) 「이·히·리·기」와 같이 /i/ 모음에 해당하는 접미사로 한국어 수동형태 문법에서는 주로 이形 접미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b. 부수다(壊す) → 부서지다(壊される)

(34a, 34b)와 같이 동사에 /-지다/가 접속하여 수동의 형태를 갖는다. 「-지다」는 형용사에 접속 할 경우, 「예뻐지다」 「좋아지다」 등과 같이 상태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34a, 34b)와 같이 타동사에 접속할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 3.1.3 「-되다/-받다/-당하다 형(形)」 첨가 형식

- (35) a. 사랑하다(愛する) → 사랑받다(愛される)  
b. 발견하다(発見する) → 발견되다(発見される)  
c. 무시하다(無視する) → 무시당하다(無視される)

(35a~35c)와 같이 「~하다」 동사의 어간에 「~하다」 대신에 수동의 의미를 갖는 「되다/ 받다/ 당하다」의 조동사가 대치하여 수동의 형태를 갖는다. 이는 주로 한어(漢語)동사의 형태에 접속하여 사용된다.

이처럼 한국어의 수동문의 경우, 일본어와 달리 그 형태가 다양하여, 「X(피동작주)이/가 Y(동작주)에게/ ~의해/ ~로부터 V/ 이·히·리·기/ -지/ -되다·받다·당하다/ -다」의 형태를 갖는다.

## 3.2 의미적 특징

### 3.2.1 피해의 의미

(1) 「이 형(形)」 수동 접미사 첨가형식

(36) 그중 열네 개는 사용자와 함께 묘지에 묻혔다. (교코 p74)

(37) 나는 무서운 목소리에 쫓기는 꿈을 꾸었다. (냉정 p9)



(36, 37)은 「묻다」 「쫓다」의 동사의 어간에 각각 「-히-」와 「-기-」가 접속함으로써 「묻히다」와 「쫓기다」의 수동표현이 되었다. 이 수동표현에 피동작주를 주어로 하여 (36, 37)과 같이 피동작주가 동작주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보조동사 「-지다 형(形)」 첨가형식

(38) 저 빌딩 앞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 (교코 p35)

(39) 옷이 벗겨지고 치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교코 p189)

(38, 39)는 「버리다」 「벗기다」의 동사의 어간에 「-지다」가 접속함으로써 「버려지다」 「벗겨지다」가 되어, 동작주가 압력을 가하여 피동작주가 변화를 갖게 된 피해의 의미를 나타낸다.

(3)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 첨가 형식

(40) 무언가 소중한 것과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 (교코 p70)

(41) 에이즈 환자가 적은 곳에서 심하게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교코 p126)

(42) 온 세계로부터 거부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였다. (냉정 p142)

(40)은 「격리하다」의 동사에 「-되다」가 접속함으로써 동작주로부터 격리된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41, 42) 역시 각각 「차별하다」와 「거부하다」의 동사에 「-받다」와 「당하다」가 접속함으로써 피동작주가 동작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의미적으로 「이 형(形)」 「지다 형(形)」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이 접속하여 피동작주가 동작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피해의 의미를 나타낸다.

### 3.2.2 중립의 의미

(1) 「이 형(形)」 수동 접미사 첨가형식

- (43) 깨끗하게 닦여 있는 부엌. (냉정 p132)  
(44) 나는 테조로라고 불리게 되었다. (냉정 p13)

(43, 44)는 「닦다」 「부르다」의 동사의 어간에 각각 「-이-」와 「-리-」가 접속함으로써 「닦이다」와 「불리다」의 수동표현이 되었다. 이 수동표현은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이해(利害) 관계와는 무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 보조동사 「-지다 형(形)」 첨가형식

- (45) 파란 볼펜으로 쓰여진 낫익은 준세이의 글씨 (냉정 p175)  
(46) 세워져 있는 길은 밤색 사닥다리, 무수한 책의 등표지. (냉정 p96)

(45, 46)은 「쓰다」 「세우다」의 동사의 어간에 「-지다」가 접속함으로써 「쓰여지다」 「세워지다」의 수동 형태를 갖는데 의미는 이해(利害) 관계와는 무관한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 「-되다/-받다/-당하다 형(形)」 첨가 형식

- (47) 7년 전에 창설된 라틴 아메리카계의 자원봉사 단체. (쿄코 p73)  
(48) 단정하게 손질된 달걀형 손톱. (냉정 p47)

(47, 48)은 「창설되다」와 「손질하다」에 「-되다」 접속하여, 「창설되다」와 「손질되다」의 수동 형태를 취한다. 의미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고 있어 중립의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한국어의 수동표현에도 의미적으로 중립의 의미를 갖는데 형태는 「이 형(形)」 「지다 형(形)」에는 모두 접속하고,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에서는 대부분 「되다」에 주로 접속하여 나타난다.

### 3.2.3 수익의 의미

(49) 마빈의 넉넉한 아량에 구원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냉정 p186)

(50) 나는 해방되었지만 지팡이를 당길 때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쿄쿄 p146)

(49, 50)은 「구원하다」와 「해방하다」의 동사에 「-받다」와 「-되다」가 접속하여 「구원받다」와 「해방되다」의 수동 형태가 된다. 의미는 동작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아 수익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수동표현은 「-받다」가 접속하여 수익의 의미를 나타낸다. 수익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은 「이 형(形)」 「지다 형(形)」의 형태에는 나타나지 않고,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에서 「당하다」를 제외한 「되다」와 「받다」형에만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어의 수동 표현 역시 일본어의 수동과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서 각각 「피해」 「중립」 「수익」의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한국어의 수동표현의 경우, 의미적으로는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의미와 중립의 의미, 그리고 수익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의미적 특징은 -받다, -당하다와 같은 접속 형태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어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 IV 수동표현의 사용 실태

앞서 II와 III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동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형태별, 의미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IV에서는 일본 소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동표현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번역소설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어에 나타나는 차이를 이해하고, 수동표현에 대한 상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소설은 일본 인기 소설인 江国香織(에쿠니가오리)의 『冷静と情熱のあいだ』와 村上龍(무라카미 류)의 『キョウコ』를 각각의 한국어로 출간된 번역소설과 함께 분석하였다. 이 소설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소설을 선정하여 쉽게 접근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두 소설 모두 일본 내에서 영화화 될 만큼 인기 소설이었고, 한국에서도 번역 작품을 통해 많이 알려진 소설이다. 또한 소설에 사용된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 작가의 문체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의 소설을 각각 한편씩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 4.1 일본소설에서의 수동표현 사용 현황

『冷静と情熱のあいだ』의 총 문장수는 약 6443문으로 이 중에서 수동형식을 취하는 문장은 184문인 전체 문장의 2.86%로 나타났다. 한편, 『キョウコ』의 경우, 총 문장수 약 4635문에서 수동형식을 취하는 문장은 167문으로 3.60%를 나타내 두 소설 모두 수동표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이는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수동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이 된 수동표현은 일본어 수동표현 기준의 『冷静と情熱のあい

11) 소설에 나타난 (ら)れる의 문장 중에서 자발·가능 준경의 (ら)れる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문에서는 오직 수동표현의 (ら)れる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だ』의 184문과 『キョウコ』의 167문으로 총 351문 이다.

이 총 351문의 일본어 수동표현에 대하여 크게 구문적 분류와 의미적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문별 현황은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의미별 수동표현은 「피해」 「중립」 「수익」의 특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이를 다시 한국어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어와 한국어 수동표현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였다.

#### 4.1.1 구문별 현황

소설에 나타난 351개의 구문별 수동표현인 직접수동과 간접수동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4.1.1.1 직접수동

- (51) a. マーヴにそんなふうに言われたことがある。 (冷靜 p157)  
b. マーヴが私にそんなふうに言ったことがある。
- (52) a. わたしは叔父夫妻に引きとられ、育てられた。 (キョウコ p7)  
b. 叔父夫妻はわたしを引きとって育った。
- (53) a. わたしに侮辱されたホセの名誉を回復するために踊っている。 (キョウコ p55)  
b. わたしが侮辱したホセの名誉を回復するために踊っている。
- (54) a. 知人に勧められて、ラテン・アメリカ系のヴォランティア団体を訪ねた。 (キョウコ p72)  
b. 知人が勧めて、ラテン・アメリカ系のヴォランティア団体を訪ねた。

(51a~54a)는 피동작주와 동작주가 각 상황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피동작주는 동작주에 의해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피동작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모두 (51b~54b)처럼 능동표현이 성립하는 직접수동이다. 이와 같은 직접수동은 수동표현 351문 가운데 286문으로 전체의 81.48%로 나타났다. 이는 수동표현은 대부분이 직접수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1.1.2 간접수동

- (55) a. 泳ごうとすると私は誰かに頭をおさえつけられるので、 (冷静 p52)  
b.\* 泳ごうとすると誰かが私を頭をおさえつけるので、
- (56) a. 玄関で互いにキスをすると、(ダニエラに)早速子供の部屋に通された。 (冷静 p162)  
b.\* 玄関で互いにキスをすると、ダニエラは早速子供の部屋に私を通した。
- (57) a. だかホセは、若い女性に強く名前を呼ばれ、怯えた。 (キョウコ p74)  
b. 若い女性はホセを強く名前を呼んで、怯えた。

(55a~57a)은 주어인 피동작주가 동작주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55b~57b)처럼 대응하는 능동표현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수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간접수동은 351문 중에서 65문으로 전체의 18.5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수동의 81.48%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로, 실질적으로 수동표현에 있어, 간접수동의 사용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구문별 현황을 통해 일본어 수동표현의 경우, 대부분이 직접수동으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수동은 능동문이 존재하는 형식이므로, 능동형식을 취하여도 의미상의 큰 차이가 없다. 이에 이러한 직접수동에 대하여 한국어 번역소설에서는 286문의 직접수동 중 132문이 능동표현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동표현과 능동표현이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일본소설의 경우는 피동작주 입장에서의 수동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한국어 번역소설의 경우는 동작주 입장에서의 능동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어의 경우는, 한국어에 비해 수동표현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4.1.2 의미별 현황

다음은 소설에 나타난 351문의 수동표현의 의미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4.1.2.1 피해의 의미

- (58) 小さいすぎる、と、いつもマーズにからかわれる足だ。 (冷静 p6)
- (59) 私はあの部屋に閉じ込められていた。 (冷静 p74)
- (60) 僕とエレナは三度宿泊を断られた。 (キョウコ p124)
- (61) 何世代もアメリカに住んでいる人間からいじめられる時、 (キョウコ p195)
- (62) キャンプで僕は嫌われていた。 (キョウコ p191)

(58~62)은 모두 피동작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수동표현이다. 이처럼 피해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은 147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51문의 전체 수동 가운데 41.88%에 해당한다.

#### 4.1.2.2 중립의 의미

- (63) 子供のころ、両親に連れられてあちこち旅行した。 (冷静 p21)
- (64) 茶碗に注がれるときの音でわかるものよ。 (冷静 p168)
- (65) クリーム色のベルトで作られている、彼女によく似合っている可愛いナップザック  
(キョウコ p190)
- (66) 僕はその子供用のダンスシューズの甲の部分に書かれてある消えかけた名前を読んだ。  
(キョウコ p190)
- (67) 腕と手が美しい角度で振り上げられ、腰が可愛く動いて、  
(キョウコ p186)

(63~67)의 문장들은 모두 피동작주와 동작주간에 어떠한 이해(利害)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동작주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중립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이다. 351문의 수동표현 가운데 이처럼 중립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은 170문으로 48.43%를 차지했다.

#### 4.1.2.3 수익의 의미

- (68) 愛された女の、そしてまた、愛されなかった女の、 (冷静 p228)

- (69) 愛びマッサージを終えてヴァンの助手席へ戻るとエレーナから誉められた。 (キョウコ p154)
- (70) アリシアはキューバから宝石を持ち出すことができたのでホセは恵まれた少年時代を送った。 (キョウコ p47)
- (71) 僕はプレゼントされたランプシェードをひぎの上に抱えていた。 (キョウコ p184)
- (72) それでめぐりめぐって僕に小さな役が与えられた。 (キョウコ p82)

(68~72)은 피동작주가 동작주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익의 수동표현이다. 분석에 사용된 351문의 수동표현 가운데 34문인 9.69%가 수익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일본소설에 나타난 수동표현 351문에 대하여 구문별, 의미별 현황을 살펴 보았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구문	직접수동	286문 (81.48%)
	간접수동	65문 (18.52%)
의미	피해	147문 (41.88%)
	중립	170문 (48.43%)
	수익	34문 (9.69%)

<표1>과 같이, 구문별로는 직접수동이 81.48%로 간접수동 18.52%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대부분이 직접수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별로는 중립의 의미와 피해의 의미가 각각 48.43%와 41.88%로 가장 많이 나타나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주로 중립 혹은 피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V. 수동표현 대응관계 분석

IV에서는 일본 소설에서 나타난 351문의 수동표현의 구문별, 의미별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보았다. V에서는 IV에 나타난 351문의 수동표현이 한국어 번역소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51개의 수동표현은 한국어에서 수동으로 대응하는 경우와 능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그대로 한국어 역시 수동표현으로 대응하는 문장은 165문으로 47.01%였고, 나머지 186문의 52.99%는 능동표현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어에서 동일한 형식인 수동으로 대응하는 165문에 대하여 형태적, 의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5.1 형태적 대응

#### 5.1.1 일본어 (ら)れる가 수동접미사 「이 형(形)」 첨가형식에 대응하는 경우

(73) a. 何かもが水音に閉じ込められていて、そのことが私たちを奇妙に正直にしていた。  
(冷静 p27)

b. 모든 것이 물소리에 갇혀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난히 정직해져있다.

(74) a. 窓の前に置かれた白い木馬は、マーヴと私の贈ったものだ。  
(冷静 p42)

b. 창문 앞에 놓인 하얀 목마는 마빈과 내가 선물한 것이다.

(73)은 「閉じ込められる」에 대하여, 「가두다」에서 「이 형(形)」 접미사의 「히」가 첨가되어 수동 형태를 갖는 「갇히다」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74)는 「置かれる」에 대하여 「놓다」에서 「이 형(形)」 접미사의 「이」가 첨가되어 수동 형태를 갖는 「놓이다」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수동표현 165문 중에서 「이 형(形)」 수동접미사로 대응하는 경우는 59문으로 35.76%를 나타냈다.

### 5.1.2 일본어 (ら)れる가 보조동사 「지다 형(形)」 첨가형식에 대응하는 경우

- (75) a. 物がみなあるべき場所にしまわれた、磨かれたシンクの夜中の台所。 (冷静 p73)  
b. 물건이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수납되어 있는, 반짝반짝 닦여진 한밤의 부엌
- (76) a. イタリア語で書かれたものもある。 (冷静 p108)  
b.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것도 있다.

(75)는 「磨かれた」에 대하여, 「닦다」에서 「지다 형(形)」이 첨가되어 수동형태가 된 「닦여지다」로 대응하고 있고, (76)은 「書かれる」에 대하여, 「쓰다」에서 「지다 형(形)」이 첨가되어 수동 형태를 갖는 「쓰여지다」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수동형태 165문중에서 「지다 형(形)」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29문으로 17.57%로 나타났다.

### 5.1.3 일본어 (ら)れる가 「되다·받다·당하다 형(形)」에 대응하는 경우

- (77) a. あらゆる感情が凝縮された濃密な時間。 (冷静 p33)  
b. 모든 감정이 응축된 농밀한 시간
- (78) a. 私は許されてここにいる。 (冷静 p143)  
b. 용서받은 내가 여기에 있다.
- (79) a. 無視されているのを知ったラルフ氏ははっきりと不快な表情を見せたが、 (キョウコ p52)  
b. 무시당한 것을 알고, 랠프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77)은 「凝縮する」에 대하여 「응축하다」에서 「-되다」가 접속하여, 「응축되다」의 수동 형태로 대응하고 있으며, (78)은 「許す」에 대하여 「용서하다」에 「-받다」가 접속한 「용서받다」의 수동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79)는 「無視する」에 대하여, 「무시하다」에 「-당하다」가 접속한 「무시당하다」의 수동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수동형태 165문중에서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에 대응하는 경우는 77문으로 46.67%를 나타내 일본어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가장 많이 대응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일본어의 (ら)れる의 단일형태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한국어 수동표현의 대응관

계를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표<2>과 같다.

<표2>

일본소설	한국어 번역소설			
(ら)れる (165문)	「이 형(形)」 첨가형식	-이-	23문	59문 (35.76%)
		-히-	18문	
		-리-	10문	
		-기-	8문	
	「지다 형(形)」	-지다	29문	29문 (17.57%)
	「되다.받다.당하다 형(形)」	-되다	26문	77문 (46.67%)
		-받다	42문	
		-당하다	9문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 수동표현 (ら)れる의 형태에 대응하는 165개 문장은 한국어에서 각각 「이 형(形)」, 「지다 형(形)」,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으로 다양하게 접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의 (ら)れる의 형태에 대하여 한국어의 「되다/ 받다/ 당하다」의 보조 조동사 첨가 형태로 가장 많이 대응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형(形)」과 「지다 형(形)」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5.2 의미적 대응

다음은 일본어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한국어에서 수동표현으로 대응하는 165문이 의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의미별로 알아보았다.

### 5.2.1 피해의 의미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수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소설에서의 「피해의 의미」의 수동표현은 57문으로 한국어의 어떤 의미와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5.2.1.1 피해의 의미로 대응하는 경우

- (80) a. 私は、怖い声に追い掛けられる夢をみた。 (冷静 p6)  
b. 나는 무서운 목소리에 쫓기는 꿈을 꾸었다.
- (81) a. 頭に来るといよりひどくバカにされた気がして元気がなくなったが、 (キョウコ p 26)  
b. 화가 나기보다는 바보 취급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힘이 쭉 빠졌지만,
- (82)a. トンネルの渋滞とかもあって時間は三時間近く経ってるわけから神に怒られることだろう、と考えたのだが、どうやらその考えは間違っていたようだ。 (キョウコ p 25)  
b. 터널의 정체 때문에 시간이 세배나 걸렸으니 신의 저주를 받을 만큼 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 했지만, 내 계획은 빗나가 버렸다.

(80~82)의 일본어 표현을 보면, 피해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역시 각각 「목소리에 쫓기다」, 「바보 취급당하다」 「저주를 받다」 등으로 피동작주가 동작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피해의 의미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처럼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 수동표현의 경우, 서술어는 「追い掛ける」 「バカにする」 「怒る」 등 동사 자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들로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역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부정적인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여 그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 수동표현에 대하여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피해가 아닌 중립, 혹은 수익의 의미를 갖는 문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수동표현으로 대응하고 있는 57문의 피해의 의미 수동표현은 의미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피해의 의미로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2.2 중립의 의미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수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소설에서의 「중립의 의미」 수동표현은 79문으로 한국어의 어떤 의미와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5.2.2.1 중립의 의미로 대응하는 경우

- (83) a. トレイに盛られた小さなお菓子 (冷静 p8)  
b. 쟁반에 담긴 조그만 과자
- (84) a. エレーナと僕は一階の一番奥の改修中のセクションの部屋に案内された。(キョウコ p 128)  
b. 엘레나와 나는 일층의 가장 구석에 있는 수리중인 구역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 (85) a. 中庭に、中国のものらしい青い壺(つぼ)が置かれていて、 (冷静 p132)  
b. 정원에 중국제인 듯한 파란 항아리가 놓여있어,

(83a~85a)의 「盛られる」「案内される」「置かれる」의 수동표현은 동사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동사이면서 피동작주가 이해(利害)의 관계와 전혀 무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한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표현이다. 따라서 한국어 역시 「담기다」「안내되다」「놓이다」와 같이 단순한 객관적 서술의 중립적 의미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 수동표현에 대하여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중립이 아닌 피해, 혹은 수익의 의미를 갖는 문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수동표현으로 대응하고 있는 79문의 중립의 의미 수동표현은 의미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중립의 의미로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2.3 수익의 의미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수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소설에서의 「수익의 의미」 수동문은 29문으로 한국어의 어떤 의미와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5.2.2.1 수익의 의미로 대응하는 경우

- (86) a. ジュエリーを買う女のひとの生活も、ジュエリーを贈られる女のひとの生活も、 (冷静 p58)  
b. 보석을 사는 여자의 생활과 보석을 선물 받는 여자의 생활을

- (87) a. 祝福され、待ち望まれている赤ちゃん (冷静 p72)  
 b. 모두의 기다림속에 축복 받을 아이
- (88) a. 救われるというのはそういうことだ。 (キョウコ p35)  
 b.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86~88)은 모두 피동작주가 동작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수익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동표현으로, 이에 대한 한국어 역시 「~받다」의 접속하여 그대로 수익의 의미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수익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 29문은 한국어에서 피해나 중립의 다른 의미로서 대응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모두 수익의 의미로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미적 대응을 살펴본 결과, 일본소설의 수동표현에 대하여와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피해의 의미는 피해의 의미로, 중립의 의미는 중립의 의미로, 수익의 의미는 수익의 의미로 대응하였다. 즉, 의미적으로는 한국어와 일본어 수동표현이 서로 동일하게 대응함을 알 수 있었다.

### 5.3 일본어 수동표현과 한국어 능동표현 대응

5.3에서는 일본어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한국어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어의 수동표현 351문 가운데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능동표현으로 번역된 경우는 186문으로 52.99%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어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상당 부분이 한국어에서는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능동으로 번역되고 있는 예문들을 구문별로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 능동으로 번역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5.3.1 직접수동

일본어 직접수동 가운데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능동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 (89) a. 一度だけあなたに叱られたことがあるの、覚えていますか。 (冷静 p56)  
 b. 딱 한번 당신이 저를 혼내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 (90) a. マーヴにそんなふうに言われたことがある。 (冷静 p82)  
 b. 마빈이 그런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
- (91) a. 子供のころ、両親に連れられてきて以来の街の空気を吸い込んだ。 (冷静 p21)  
 b. 어릴 시절, 부모를 따라 와 본 이후 처음인 도시의 공기를 마셨다.
- (92) a. 「あおいにそう望まれれば」マーヴはわらってうけあった。 (冷静 p50)  
 b. “ 아오이가 그러길 바란다면” 마빈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 (93) a. バレエも彼女に誘われて始めたの。 (冷静 p62)  
 b. 발레도 그녀가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 했어.
- (94) a. もちろんオレにはそんな金はなかった。試されてるな、と思ったね。 (キョウコ p13)  
 b. 물론 나에게 그만큼 거금이 있을 리가 없다. 나를 시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95) a. これだけ見事にジョージア・ポリスに嫌われる要素をそろえるのは難しいぞ。 (キョウコ p148)  
 b. 이만큼 조지아 경찰이 싫어하는 요소를 갖추기도 힘들다.

(89a)는 「叱る」 동사에 (ら)れる가 접속하여 「叱られる」의 수동형태를 갖는 것과 달리, 「叱る」에 해당하는 「혼내다, 나무라다」는 「이 형(形)」, 혹은 「-지다 형(形)」, 「되다 / 받다 / 당하다 형(形)」의 수동 형태 접속이 어렵다. 즉, 「叱られる」에 해당하는 수동 형태가 한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89b)와 같이 능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89a~95a)의 「言う」 「望む」 「連れる」 「誘う」 「試する」 「嫌う」 동사 역시 일본어에서는 (ら)れる가 접속하여 「言われる」 「望まれる」 「連れられる」 「誘われる」 「試される」 「嫌われる」의 수동 형태를 갖지만,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말하다」 「바라다, 원하다」 「데리다, 동반하다」 「권하다」 「시험하다」 「싫어하다」는, 「이 형(形)」, 혹은 「지다 형(形)」,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의 수동 형태 접속이 어렵다. 즉, 이러한 한국어 어휘에는 수동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89b~95b)와 같이 능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직접 수동표현은 한국어의 수동표현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어의 직접수동표현이 한국어에서 능동문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86~92)처럼 「혼내다, 말하다, 바라다, 데리다, 권하다, 시험하다, 싫어하

다」와 같은 수동표현을 취할 수 없는 어휘로, 한국어 어휘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5.3.2 간접수동

일본어 간접수동 가운데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96) a. 警官や移民局の人間にしょうちゅう出入りされるのは、私の望むところではない。 (キョウコ p 46)  
 b. 경찰관이나 이민국 사람들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도 나에게는 즐겁지 못한 일이다.
- (97) a. 大切な友達に死なれるなんて嘘つかれても怒りも泣きもしないで、 (キョウコ 107)  
 b. 소중한 친구가 죽었다는 거짓말에도 화를 내거나, 울지 않고,
- (98) a. にとりと微笑まれ、私はふいに、泣き出したい気持になる。 (冷静 p42)  
 b. 페데리카가 방긋 웃어, 나는 갑자기 울고 싶은 기분이 된다.
- (99) a. このまますわれちゃったらどうするの? (冷静 p9)  
 b. 그냥 이대로 눌러있으면 어떻게 하려구?
- (100) a. おじいさんに入院されたこと。 (冷静 p266)  
 b. 할아버지가 입원한 일,

(96a)는 「警官や移民局の人間が(私の家に)出入りする」의 상황에 대하여 「出入りされる」의 수동표현을 사용함으로써 「私は警官や移民局の人間に(私の家に)出入されて困っている」 「警官や移民局の人間に(私の家に)出入されるのはいやだ」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즉 이는 경찰관이나 이민국 사람들이 집에 출입하는 상황이 나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이나 현상이 받아들이는 대상의 입장에서 볼 때 「迷惑だ／困る」의 감정을 갖게 하여 이를 수동 형태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의 의미로 나타내는 수동표현을 「迷惑の受身」라고 하며 간접수동에 해당한다.<sup>12)</sup>

(96a~100a) 역시 「迷惑・被害」의 의미를 갖는 간접수동 수동표현이다.

12) 森田良行(1995),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p134  
 寺村秀夫(1982), p244

한편 (96~100)의 간접 수동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동사는 「出入りされる」「死なれる」「微笑まれる」「いすわれる」「入院される」로 모두 「出入りする」「死ぬ」「微笑む」「入院する」 자동사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간접수동은 대부분 자동사에 (ら)れる가 접속한 형태를 갖고 있고, 의미적으로는 피해(迷惑)의 의미를 갖는 「迷惑の受身」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어는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수동 형태를 갖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자동사에 대한 수동표현이 존재하지 않아<sup>13)</sup>, 자동사에 의한 피해를 나타내는 일본어의 간접수동은 대부분 한국어에서는 능동표현으로 대응하거나 의역을 하여 나타낸다.

V에서는 일본어 수동표현이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일본소설		한국어 번역소설	
직접수동	286문	수동표현	154문 (53.85%)
		능동표현	132문 (46.15%)
간접수동	65문	수동표현	11문 (16.92%)
		능동표현	54문 (83.08%)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수동은 전체 직접수동표현의 46.15%가 한국어 번역소설에서는 능동표현으로 대응하였고, 간접수동은 전체 간접수동의 83.08%가 한국어 번역소설에서는 능동표현으로 대응을 하였다.

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직접수동이 한국어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수동의 형태를 갖기 어려운 어휘의 동사들로, 한국어에는 수동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어의 능동표현으로의 대응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3) 權奇洙(2005), 『韓日兩國語の受身表現の対照研究』, J&C, p264

한편 간접수동은 직접수동에 비해 한국어에서 능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즉 일본어의 간접수동이, 한국어에서는 동일한 수동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접수동이 한국어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동사에 의하여 피해(迷惑)를 의미를 나타내는 「迷惑の受身」임을 확인하였다.





## VI. 결 론

지금까지 일본어와 한국어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일본어와 한국어에 있어서 수동(受動)이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작용을 받은 대상인 피동작주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수동표현에 대하여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형태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서술어인 동사의 미연형에 (ら)れる가 접속하는 단일형태를 갖는데 반해, 한국어의 수동표현은 동사에 따라 「이 형(形)」 「-지다 형(形)」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이 접속하는 다양한 수동 형태를 가졌다.

② 구문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동작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대응하는 능동형식이 존재하는 직접수동과, 동작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대응하는 능동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간접수동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의 수동표현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어의 직접수동에 해당하는 수동 형식으로, 한국어에는 일본어의 간접수동에 해당하는 구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③ 의미적 특징으로는, 한·일 양국어 모두 동작주와 피동작주의 이해(利害)관계에 따라 동작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피해의 의미와,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동작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서술하는 중립적 의미, 그리고 피동작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てくれる」 「てもらう」의 의미를 갖는 수익(受益)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세 가지의 의미적 특징으로 나눌 수 있었다.

2)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 특징을 토대로, 일본 소설에서 나타난 수동표현 351문을 발췌하여, 실질적으로 수동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① 구문별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직접수동은 286문으로 81.48%를 나타냈고, 간접수동은 65문으로 18.52%를 나타내 직접수동이 간접수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대부분이 직접수동이었다.

② 의미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피해」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은 147문으로 41.88%로 나타났고, 「중립」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은 170문으로 48.43%, 「수익」의 의미를 갖는 수동표현은 34문으로 9.69%로 나타나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대부분 의미적으로 「피해」와 「중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일본소설에 나타난 수동표현이 한국어 번역소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어와 일본어 수동표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일본어 수동표현 351문이 한국어 번역소설에서 동일하게 수동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165문으로 47.01%로 나타났고, 능동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186문으로 52.99%로 나타났다. 즉, 일본어의 모든 수동표현이 한국어에서 그대로 수동표현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한국어에서 수동표현으로 대응하고 있는 165문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형태적으로는 일본어의 (ら)れる의 단일 형태에 대하여, 한국어에서는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의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가 46.67%로 가장 많이 대응을 하였고, 다음은 「이 형(形)」접미사 첨가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가 35.76%로 나타났으며, 보조동사 「-지다 형(形)」첨가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는 17.57%로 나타났다.

② 의미적 대응을 살펴보면, 일본어 피해의 의미의 수동인 경우 한국어 역시 피해의 의미로 대응하였으며, 일본어 중립의 의미의 수동인 경우 한국어 역시 중립의 의미로 대응하였다. 또한 일본어 수익의 의미인 경우 한국어 역시 수익의 의미로 대응하여 대부분의 수동표현이 의미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다음으로 일본어의 수동표현에 대하여 한국어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의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직접수동이

46.15%로 나타났고 간접수동이 전체 간접 수동의 83.08%로 나타나, 일본어의 간접수동은 대부분 한국어에서는 수동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일본어의 직접수동이 능동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어에서 수동 형태를 갖기 어려운 어휘에 의한 것으로, 일본어에서는 수동형태가 가능한 어휘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어휘는 「이 형(形)」, 혹은 「-지다 형(形)」, 「되다 / 받다 / 당하다 형(形)」의 수동 형태 접속이 어려워 대부분이 능동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일본어의 직접수동은 어휘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편 한국어에서 능동표현으로 대응하는 일본어의 간접수동은, 대부분이 자동사에 의하여 피해(迷惑)를 나타내는 「迷惑の受身」로, 자동사에 의한 「迷惑の受身」는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 한국어와 일본어의 수동표현은 수동(受動)이라는 동일한 의미로서의 문법 형식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동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그 특징에 따라 동일하게 표현되는 경우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설에 나타난 일본어 수동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형태적, 구문적, 의미적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국어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参 考 文 献

### <예문출처>

- 江国香織 (2001), 『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編』, 角川書店  
김난주 訳 (2001), 『냉정과 열정사이 Rosso 編』, 소담출판사  
村上竜 (1995), 『キョウコ』, 集英社  
양익관 訳(1997), 『교코』, 민음사

### <외국문헌>

#### <단행본>

- 寺村秀夫 (1984), 『日本語のシタクト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益岡陸志 (1992), 『基礎日本語文法』-改正版-, ひつじ書房  
日本語研究資料集 (1995), 『動詞の自他』, ひつじ書房  
森田良行 (1996), 『意味分析の方法』, ひつじ書房  
森田良行 (1995), 『日本語の視点』, くろしお出版  
児玉徳美 (1991), 『言語のしくみ』, 大修館書店  
鈴木一彦 (1990), 『日本語をみつめた文法・現代語』, 東腕社  
許明子 (2004), 『日本語と韓国語の受身文の対照研究』, ひつじ書房

#### <사전류>

- 日本語教育学会編 (1982), 『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日本語教育学会編 (1990),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大修館書店  
日本大辞典刊行会編 (1980), 『日本語国語大辞典』, 小学館  
山口明穂・秋本守英 編 (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 <논문>

- 金水 敏 (1991), 「受身文の歴史についての一考察」 『国語学』 (164集), 日本国  
語学会

- 金水 敏 (1992), 「場面と視点-受身文を中心に」 『日本語学』 (8月号), 明治書院
- 奥津敬一郎 (1983), 「何故受身か?」 『国語学』 (132集), 国語学会
- 張 麟声 (1997), 「受身文における動作主明示・不明示の構文的規則について」 『日本語学』 (16号), 明治書院
- 山内博之(1997), 「日本語の受身文における『持ち主の受身』の位置づけについて」 『日本語教育』 (92号), 日本語教育学会
- 奥津敬一郎 (1992), 「日本語の受身文と視点」 『日本語学』 (5月号), 明治書院
- 川村よし子 (1991), 「日本人の言語行動の特性」 『日本語学』 (4月号), 明治書院
- 田中真理 (1995), 「視点・ヴォイスの習得」 『日本語教育』 (88号), 日本語教育学会
- 谷守正寛 (2000), 「間接受身文に対応する文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語教育』 (107号), 日本語教育学会
- 生越直樹 (1984), 「文法の對照的研究」 『日本語教育』 (5号), 日本語教育学会
- 高橋太郎 (1985), 「現代日本語のヴォイスについて」 『日本語学』 (4月号), 明治書院

#### <한국문헌>

- 권기수 (2005), 『韓·日兩國語の受動表現の對照研究』, J&C
- 이성규 (2001), 『일본어 수동문 연구의 전개 I』, 불이문화
- 박현주 (2003), 『日韓兩言語における受動文と使役文』, J&C
- 이정택 (2002), 『현대 피동표현 연구』, 박이정
- 최재희 (2004), 『한국어문법론』, 대학사
- 北村唯司 (2004), 『한국어 피동표현 연구』, J&C
- 안증환 (2002), 『능동구조의 한국어와 피동구조의 일본어』, J&C
- 김민수 (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사전류>

- 이희승 외 편저 (199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논문>

이상익 (1970), 「국어의 사동·피동구문 연구」 『국어연구26』,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박양규 (1978), 「使動과 被動」 『국어학8』, 국어학회

배희임 (1985), 「국어피동연구」, 고려대학교 국어연구회

우인혜 (1993), 「국어의 피동법과 피동표현의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학회

정수현 (1985), 「現代韓·日語의 被·使動表現의 類型的 大조연구」, 『日語日文学研究6』, 일어일문학회

이성규·神谷健児(1999), 「日本語の間接受動の意味的特徴」, 인하대학교, 論文集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e of Passive Expression  
in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Cheong Ha-young**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Seung-han**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use the passive expression to express that a subject is influenced by outside factors without its volition. The passive expression in Korean and Japanese have the same grammatical form, centered on the subject that is influenced, though the application does not always correspond, which can be confusing when studying these languages.

In general conversation with Japanese people, there is frequent application of the passive expression. In contrast however, the active expression is primarily applied in Korean. Therefore, this thesis studies the form and meaning of the passive expression in various applications in Japanese and how it corresponds to Korean. In addition, this document seek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liberal application of the passive expression in Japanese compared to in Korean, in an effort to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a good command of the passive expression in Japanese.

This thesis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section presents the general peculiarities of the passive expression in Korean and Japanese.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The second section analy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sive expression in Korean and Japanese. This thesis studie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assive expression in two carefully chosen Japanese novels and their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s.

The Japanese passive expression has a singular form - (ら)れる is related to a verb that is the predicate. Whereas, Korean has diverse forms - one of 「이 형(形)」 「-지다 형(形)」 「되다/ 받다/ 당하다 형(形)」 is connected according to the verb. In grammatical construction, the Japanese passive expression is divided into the direct passive that is directly influenced by the agent and the indirect passive that is indirectly influenced. But as Korean language does not have the indirect passive form, most of Korean passive expression conform to Japanese direct passive form. In meaning, on the other hand, both Korean and Japanese passive form express damage, neutrality and benefit.

In the practical applications in the Japanese novels, the direct passive is found much more than the indirect passive. And most of them express damage and neutrality among the meanings of damage, neutrality and benefit.

Meanwhile, there is a bold distinction between Japanese and Korean novels in their grammatical expression. When translators render Japanese novels into Korean, the passive expression in Japanese is typically changed into active expression in Korean. In this case, rather than direct passive, it is more often indirect passive that is translated into active expression in Korean.

When translating passive expression into Korean, one is faced with the challenge of having a very limited vocabulary. Most of the indirect passive is 「迷惑の受身」 that express damage by an intransitive verb, but 「迷惑の受身」 is the expression that cannot be found in Korean language.